



서울대학교병원

# 의생명연구원 뉴스레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NEWSLETTER

발행인: 방영주 편집인 : 성문우

발행일 2015년 9월 30일(제8호)

##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개소



서울대학교병원이 7월 16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신개념 의학연구의 플랫폼이 될 '의학연구혁신센터(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CMI)'를 개소했다. 이날 오후 열린 개소식에는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장, 방영주 의생명연구원장, 나경원 의원, 조정식 의원, 박인숙 의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2012년 5월 착공한 의학연구혁신센터는 지상 4층, 지하 5층에 연면적 31,261㎡ 규모로 6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개방과 융합,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계, 대학, 연구소와 병원이 R&D 전 과정을 초기단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의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오병희 원장은 "한국형 연구중심병원의 선두주자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은 연구를 통해 의학발전을 선도하는 것이기에 현시점에서 새로운 개방형 융복합 연구를 위한 연구공간의 확충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며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학연구혁신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헬스 테크놀로지의 세계적인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영주 의생명연구원장은 "의학연구혁신센터는 개방과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서 한국형 연구중심병원과 HT(Health Technology)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 우수 병원 사례와 같이 연구를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모델을 실현하는 중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 NIH Director, Dr. Collins 방문



프란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원장이 로저 글라스 미국 포가티 국제센터 센터장과 함께 9월 8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 콜린스 원장과 글라스 박사는 강대희 서울의대 학장과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방영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등과 환담을 하고 병원의 진료 및 연구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콜린스 원장은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의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의생명 분야 연구의 절호의 기회'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히 국가 간 자료 공유를 통해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강 후에는 국립보건원에서 연수를 했던 교수들의 경험을 일일이 경청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세계 의학연구의 메카로 이곳에서 연수를 받은 많은 의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의학발전을 이끌고 있다. 오병희 병원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류의 보편적 건강증진을 위한 양 기관의 연구협력이 보다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서울대학교병원 - 녹십자 공동 연구 협약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장과 허일섭 녹십자 회장이 7월 1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백신개발 등 메르스 관련 협력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병희 병원장, 방영주 의생명연구원장, 오명돈 교수, 허일섭 녹십자 회장, 허은철 사장, 박두홍 종합연구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인력, 기술,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 메르스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메르스 확진환자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혈액 샘플을 이용해 바이러스의 기초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고 녹십자는 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통해 축적된 백신 개발, 생산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 ▶ 임상시험센터 20주년 기념 행사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방영주)가 17일 개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임상시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우수 연구자와 임상시험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임상시험의 과거 흐름과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계획을 설계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2부에 걸쳐, '한국 임상시험: 현황과 미래'와 '미래 임상시험을 위한 혁신기술' 등을 주제로 지동현 임상시험산업본부 이사장, 유경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동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래웅 아주대학교병원 교수가 발표했다.

이날 초기임상시험 자동화시스템(EPIC)과 임상시험센터약국 자동화시스템(RFID System)의 구축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도 함께 열렸다. 모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임상시험 자동화시스템으로 연구 수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수준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18일에도 이어졌다. 제3회 마이크로도징 국제심포지엄과 의료기기임상시험 심포지엄이 각각 '임상 및 진단을 위한 마이크로트레이싱의 최신지견'과 '국산 내시경 개발의 현재와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요일	시간	내용
9월 16일 (수)	16:00-18:00	Foreign Pharma/CRO 간담회
9월 17일 (목)	13:00-18:00	CTC 20주년 Symposium
9월 18일 (금)	09:30-12:30	3rd Microdosing Symposium
	14:30-18:00	10th 의료기기 Symposium

### ▶ 초기임상연구 자동화시스템 및 약국 전자관리시스템 런칭

2015년 9월 17일 초기임상시험자동화시스템인 EPICS (Early Phase Integrated Clinical Automation Solution)와 약국 전자관리시스템(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인 IPMS (Investigational Product Management System) 런칭 행사를 개최하였다. 먼저 EPICS 및 IPMS 도입 및 구축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각각의 시스템 시연동영상을 관람하는 순서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EPICS 구축을 담당한 업체인 옴니콤(Omnicom)을 대신하여 컨설팅업체인 인디고컨설팅이 참석하였고, IPMS 개발을 담당한 한미IT 등 관련 업체 직원들과 서울대학교병원 EPICS와 IPMS 담당실무자



및 기타관련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시스템 런칭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영주 의생명연구원장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연구 업무의 자동화와 좀 더 능률적인 업무 흐름을 가능하게 해 병원 내 임상연구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초기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로서 “국제적 초기 임상시험을 선도한다는 목표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 SNUH-Pfizer Open Innovation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서울대학교병원과 Pfizer의 4번째 미팅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미팅은 2014년에 5월 11월 두 번, 2015년 4월에 각각 진행되었다. 10월 미팅에서는 송영욱, 김연수, 정두현 교수가 Pfizer와 진행하고 있는 협력 연구의 경과 발표 및 추가적인 협력 연구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방문



2015년 8월 20일 서울대학교병원 방영주 의생명연구원장, 정진호 기획조정실장 및 의생명연구원 주요 보직자와 연구자들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선경 교수의 초청으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이곳에서 주요 연구시설인 신약개발지원센터, 임상시험 신약 생산센터, 실험동물센터의 시설을 견학하고 각 센터의 센터장들과 주요 연구자들을 만나 공동연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연구중심병원 자체 평가회 개최

연구중심병원육성 R&D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암-만성염증 극복을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과제(주관연구책임자 방영주 교수)에 대한 자체 평가회가 2015년도 8월 21일 CMI 2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간 동안 개최되었다. 과제에 참여하는 세부연구책임자와 주요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리병원 연구중심병원과제 전체 PM을



맡고 있는 이사람 연구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의생명연구원장 방영주교수, 의생명연구원 연구지원본부장 김희찬교수, 기초실장 정진호교수, 암병원 원장 김태유교수가 내부위원으로 김빛내리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과제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평가하였다.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들과 과제의 내부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다각도로 논의되어 과제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SNUH-SNU BioMax Symposium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2015년 9월 22일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정진호 교수, 김호수 교수와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성제경 교수, 고광표 교수가 폐록시솜증식체 활성화수용체의 혈관 및 근육 형성에 있어서의 역할과 임상 및 동물모델을 이용한 마이크로비옴 연구 등의 연제로 강연하였다.